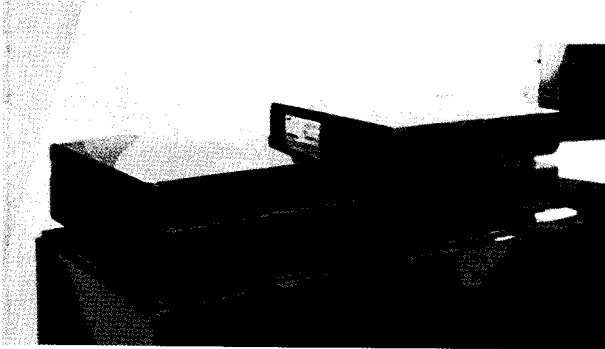


삼성 프린터, '아시아 디자인 상' 수상



삼성 프린터가 '아시아 디자인 상' 수상으로 또 한 번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홍콩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디자인 공모전인 'DFA(Design for Asia Award) 2008'에서 프린터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모노 레이저 프린터(모델명 : ML-1630)와 모노 레이저 복합기(모델명 : SCX-4500)가 동상(Bronze)을 수상했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DFA 2008은 지난 '03년 제정된 대표적인 아시아 디자인 공모전으로, 전자제품, 가구, 중장비, 식기류 등 각 제품군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했다.

이번에 동상을 수상한 삼성전자 모노 레이저 프린터와 복합기는 삼성전자가 작년 9월 출시한 제품으로, 개인의 스타일과 가치를 중시하며 사용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프린터 업계 최초로 감성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슬림, 매끄러움, 조용함(Slim, Sleek & Silent)'을 기본 콘셉트로 풍부한 블랙 컬러와 하이그로시 고품격 재질, 소프트 터치 기능에 자연스런 사운드와 같은 감성적인 요소들을 채용해, PC 주변기기로 책상 밑에 숨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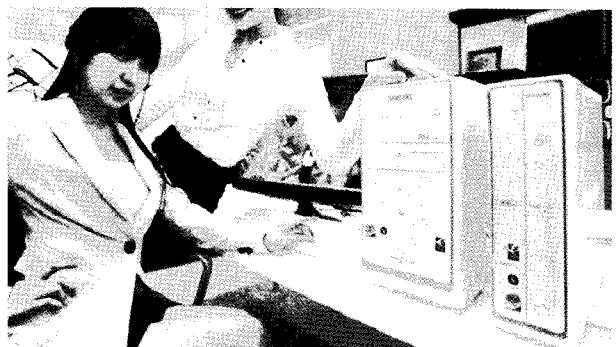
프린터를 모던한 사무공간에 가구처럼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품의 심미성을 고려한 외관 디자인 뿐만 아니라 인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소모품 교체를 위해 프린터 상판을 새롭게 개발하는 등 사용자의 편리한 사용 환경에 주안점을 두었다.

1년 전 출시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프린터 같지 않은 감성 프린터'로 인정받은 모노 레이저 프린터(모델명 : ML-1630)와 모노 레이저 복합기(모델명 : SCX-4500)는 '07년 한국 GD 국무총리상, 프랑스 Observateur du Design, 일본 G-mark, 독일 iF Communication, 올해 영국 D&AD 디자인 은상, 미국 IDEA 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디자인상을 수상해 디자인력을 인정받았다.

무선모델인 ML-1630W와 SCX-4500W는 CES 2009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배준원 책임 디자이너는 "요즘 고객들은 성능만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고객 요구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리비용 절감형 기업용 데스크탑 PC 출시



삼성전자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2009년형 기업용 데스크탑 PC '매직스테이션 DB-P100' 과 '매직스테이션 DB-Z100' 을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기업용 데스크탑 PC 2종은 기업 IT자산 관리 프로그램 '스마트매니저 5.0' 을 기업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추가로 지원한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매니저 5.0' 은 기업, 학교, 관공서 등에서 IT 관리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량의 PC들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자산, 보안, 장애 등의 관리를 한 곳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보안관리기능을 통해서도 네트워크 내 PC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알림 설정과 네트워크 침입 탐지와 차단 등을 할 수 있으며, 장애관리기능으로는 IT 관리자가 네트워크 내 PC에 원격으로 접속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종료할 수 있다. 자산관리기능을 이용하면 한 번의 조작으로 전체 사용자와 PC 현황을 조회하고 이를 엑셀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PC를 손쉽게 복구할 수 있는 복원솔루션이 장착됐고 데이터 저장의 안정성을 위해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하드디스크의 패스워드 설정이 가능해 도난이나 분실 시에도 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인텔의 차세대 기업용 칩셋인 'Q43 익스프레스' 를 탑재했으며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플래시메모리 드라이브, OS 등을 최신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 컴퓨터시스템사업부 김현수 부사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기업용 제품들로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보안과 관리 부분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이룰 것" 이라고 말했다.

(주) 인포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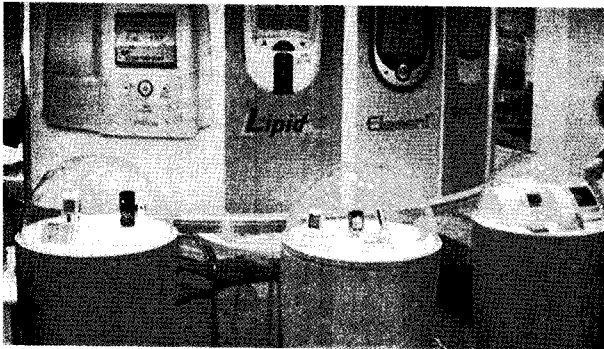


독일 MEDICA 2008 참가

당사는 지난 11월 19부터 22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전시회 MEDICA 2008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4,313개사의 참가업체와 137,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증가된 관람객 수를 보이는 등, MEDICA의 명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기존의 제품군인 혈당측정기는 물론 새로 개발된 HbA1c 측정기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선보임으로 많은 관람객의 관심 대상이 되었으며, 구체적인 거래로 이어질 심도 있는 상담들이 진행되어, 2009년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구, 중남미 등의 다양한 바이어들의 내방을 받아, 향후 인포피아의 전세계 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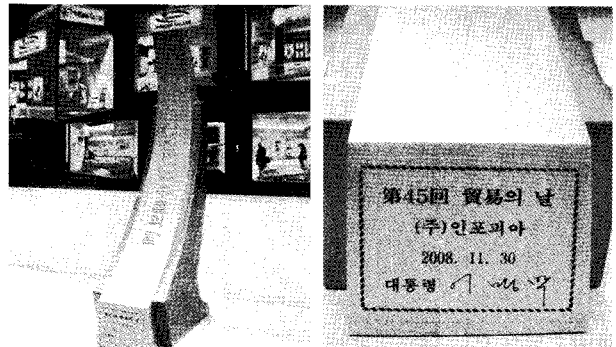
인포피아, 3,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혈액진단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주)인포피아는 제45회 무역의 날을 맞아 12월 2일 3,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 매년 100%에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총매출액 중 90%가량을 미주 및 유럽등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어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다.

“기존 혈당측정기와 바이오센서 시장외에 병원용 혈당기인 ‘이지에이원씨’를 올해 중순 출시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체내의 콜레스테롤수치와 혈당측정등 멀티측정이 가능한 ‘리피드프로’의 출시가 임박해 있어 이들 신규개발된 제품의 출시로 4분기 매출에 일부 기여할 뿐 아니라, 내년의 경기불황속에서도 매출 효자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주)인포피아는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 수출되는 기업으로, 환율상승의 혜택과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의 업종 특성을 가지고 있다.

회사는 내년에 출시되는 심장질환진단센서와 향후 몇 년 내에 출시 예정인 암진단센서, 무채혈 혈당측정센서 등을 갖춘 종합 바이오센서 전문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포피아, 나이지리아에 혈당측정기 수출계약

혈액진단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인포피아는 나이지리아의 C사와 1년간 80만 불의 ‘Clover A1c’ 기기 및 카트리지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C사는 작년부턴 인포피아의 혈당측정기 및 바이오센서를 자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내년부턴는 병원용 혈당측정장비인 Clover A1c까지 병행해서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포피아 관계자는 “인포피아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시장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개월 사이에 독일, 터키, 체코, 사우디 등과 Clover A1c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내년에도 견실한 성장이 예상된다”며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미국 FDA 승인이 마무리되면 수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화전자(주)

자화전자 강세... LED업체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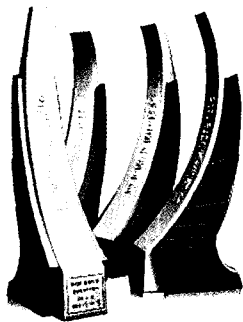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업체를 인수한 자화전자의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22일 오전 9시 37분 현재 자화전자는 전거래일대비 6.01%(220원) 오른 3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화전자는 지난 19일 사업다각화를 위해 LED 조명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라이텍의 지분 68%를 12억원에 인수해 계열사로 추가한다고 공시했다.

최근 정부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LED 관련주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며 주목 받고 있다.

잘만테크(주)



지난 2004년 '1000만불 수출탑'을 받은 뒤 2005년과 2006년에 2000만불, 3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꾸준한 수출증가로 매년 1000만불씩 성장하여 세계 64개국에 'ZALMAN'이라는 독자브랜드로 이뤄낸 성과로 제45회 무역의 날을 맞아 '5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제넥셀메디칼(주)



33억 규모 대덕특구 클러스터사업 선정

제넥셀세인은 지식경제부와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가 추

진하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전문클러스터 사업 주관기관으로 지난 11월 4일 선정되었고 현재 특구 협약 및 참여기관 협약이 완료되었다.

이 사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기관들과 인프라를 연계시켜 바이오의약품을 2년 내에 제품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제넥셀세인 외에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스바이오텍,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한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들은 향후 2년간 33억규모의 클러스터사업을 진행한다.

제넥셀세인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선 자체 개발중인 블록버스터급 항체 치료제의 전임상 및 임상 시료 생산과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은 이 시료들에 대한 단백질특성분석을 담당하고, 한스바이오텍은 생산공정 개발을 담당하며 한국화학연구원과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각각 독성분석과 안전성분석을 담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제넥셀세인은 향후 개발된 바이오의약품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GMP 시설에서 생산, 국내외에 공급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특징은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들이 밀집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여러 연구기관들이 가진 역량을 전략적으로 결집시켜 항체 단백질 의약품 개발능력을 극대화시킨 점"이라며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세계 경쟁력을 갖춘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거점으로써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지엠코퍼레이션

R-4 '불도저(Bulldozer)' 전격 출시

컴퓨터 케이스 및 파워서플라이 전문회사 (주)지엠코퍼레이션(대표 : 김문철 www.gmc.co.kr)에서는 R-4 '불도저(Bulldozer)'를 12월12일 전격 출시한다.

R-4 '불도저'는 기존 컴퓨터 케이스에서 찾아 보기 힘든 독창적이고 화려한 디자인, 강력한 쿨링, ODD 수직 장착 방식, 조립의 편의성 등 한층 진보된 컴퓨터 케이스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초 국내 신제품 발표회와 독일 CeBIT 전시회를 통하여 공개된 이후에 해외 및 국내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던 제품이다. 예상보다 출시가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좋은 품질과 완성도 높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미 시제품만으로 굿디자인을 수상한 정도로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수상을 한 제품이다.

이번에 출시한 R-4 '불도저'는 기존 ODD 수직장착 방식인 R-2 '토스트(TOAST)', R-3 '코로나(CORONA)'에 이은 하향 장착방식이다. ODD 장착은 외부에서 상단 커버만 분리하면 쉽게 탈착이 가능하며 보다 기존 보다 한층 안정된 각도로 설계 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의 쇼크 업 소버(Shock Absorber)를 연상 시키는 ODD 트레이 개폐 방식의 적용으로 역동감을 준다.

전면에는 붉은색의 92mm LED 팬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쿨링과 튜닝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시스템 내부로 직접 유입 시키는 구조

이기 때문에 발열에 좀 더 유리한 구조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한 탈착식 에어필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손쉽게 분리가 가능하여 장시간 사용 후 먼지 제거에도 수월하다.

디자인은 물론 쿨링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R-4 '불도저'는 인텔에서 정식으로 인증받은 사시를 좀 더 개량한 제품으로 사용자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 케이스 하단과 후면에 각각 80mm 팬을 추가로 장착 할 수 있다. 최근에 출시한 인텔의 i7 코어와 같은 고발열 CPU와 고사양 그래픽 카드도 보다 효과적인 쿨링이 가능하다.

R-4 '불도저'는 외부에서 보는 크기는 작지만 Full-ATX 메인보드와 대용량의 대형 파워서플라이 장착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길이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대형 그래픽 카드까지 무리없이 장착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 보호를 위해 기존 스티로폼 포장 방식이 아닌 에어백을 사용하여 제품 운반시 안정성을 한층 보강했다.

마지막으로 R-4 '불도저'는 이번에 출시한 기본 타입 이외에 두가지 모델이 차후 출시가 될 예정으로 R-4 'Bulldozer' Advance 모델과 R-4 'Bulldozer' Color 모델로 구분이 된다.

R-4 'Bulldozer' Advance 모델은 기본 사양에서 멀티 온도 센서(전면, 측면), 사이드 패널 데코, 측면 80mm 팬, 2단계 팬속도(RPM) 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풀스펙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층 파격적인 색상의 컬러가 적용할 예정으로 차후 White, Red, Orange, Green 색상으로 다양하게 라인업이 구성될 예정이다.

(주)케드콤

케드콤, 페루 대규모 추가 광구 계약 임박

- ▶ 페루페트로와 직접협상을 통한 계약체결 예정
- ▶ 주요 생산유전이 위치한 까미세아 분지와 유사한 지질 지층구조 형성 지역



케드콤은 페루의 대규모 광구 추가 계약의 임박으로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케드콤은 페루페트로와의 직접협상을 통해 대규모 신규 탐사광구(광구번호 : WGS-84 / 면적 : 599,650ha)의 취득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체결을 위한 최종 행정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페루정부의 국제입찰에 참가하여 160광구를 이미 확보한 바 있는 케드콤과 CCP 컨소시움은 9월부터 내년 입찰대상광구 중 하나로 자이언트급 석유자원 매장 지역으로 평가되는 페루 중서부의 우까알리 분지 서쪽 WGS-84 광구에 대한 페루페트로와의 직접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직접협상의 조건으로는 케드콤과 CCP 컨소시움에 탐사 개발권을 부여하고, 로열티 25%, 의무탐사기간 및 조건은 160광구의 기준을 준용하며 광권발효시기는 2008년 국제입찰 선정광구 발효시기와 동일하다. 직접협상을 통한 광권취득으로 인한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나 기타 별도의 취득비용은 없다.

CCP의 지질지층분석부문 최고책임자인 발디베소(Adrián Montoya Valdivieso)는 "해당광구 전 지역에 걸쳐 트리아스기와 쥐라기에 형성된 근원암(Source Rock)이 고

르게 발달되어 있고 일부 지역의 저류암(Reservoir Rock) 및 덮개암(Seal Rock)이 형성된 구조가 대규모 생산광구인 까미세아 분지와 매우 유사하여 대규모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분석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광권이 발효되는 즉시 12개월 동안 기초 지질데이터 확보 및 해석작업과 중량자기측정을 진행하여 광맥 및 광상에 대한 기초확인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WGS-84광구 취득협상과 관련하여 지난 11월말 페루를 다녀온 케드콤의 이경수 전무는 "페루페트로의 다니엘 사바(Daniel Saba) 사장과 호세 코즈(Jose A. Coz) 계약 담당관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로열티 적용기준을 포함한 최종 계약체결 원칙에 합의를 했으며, 최종 계약체결 및 광권발효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기간을 2008년 국제입찰 광구 광권발효 예정일 이내로 단축하는데 최대한 협조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케드콤은 WGS-84광구(가칭 160-A광구)의 계약이 체결되면 페루 내에 2개의 광구를 보유하게 되어 본격적인 석유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CCP와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를 확대키로 하여 페루는 물론 중남미 지역의 자원전문기업으로 공격적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주)케이티브이글로벌



KTV글로벌, 1500만달러 해외투자 유치 성공
경기 불황으로 자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중소 LCD TV업체가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KTV글로벌(대표 최헌용)은 중동에서 1500만달러 투자 유치 계약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KTV글로벌에 투자를 결정한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빈라덴그룹 산하 BTC(Baud Telecom Company)이며 그동안 자금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KTV글로벌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트게 됐다.

사우디 BTC는 KTV 지분 49%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1500만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KTV와 계약을 맺고 1차 주식 증자분 700만주를 12월 18일 처리했다. 잔여분 800만달러도 12월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KTV글로벌 측은 “이레전자·디보스 등 대부분의 중소 LCD TV업체가 자금난으로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 상황에서 이번 투자 유치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사우디 BTC는 지난 11월 KTV글로벌에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주주로 부상했다. 그러나 51% 지분을 가진 현 경영진이 경영을 위임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KTV글로벌 측이 설명했다.

LG 에어컨 1억대 판매 돌파



LG전자 에어컨 사업이 40주년을 맞은 올해 에어컨 누적

판매 1억대 기록을 세웠다.

올해 들어 11월 초까지 약 1,300만대를 판매함으로써 에어컨 업계 최초로 1억대를 돌파했다. 1968년부터 1분에 4.8대의 에어컨을 판매한 셈이다.

LG에어컨은 2004년 이후 텐밀리언 셀러 행진을 이어가며 지난해에는 1,600만대 이상을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판매된 에어컨 5대중 1대가 LG에어컨 인 셈이다.

LG전자 창원 에어컨 공장은 전세계 경기침체와 비수기에 도 불구하고 난방제품, 시스템에어컨 수요 증대에 맞춰 연말에도 풀 가동 중이다. 세계 최고 생산성과 환율 효과로 국내 생산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LG전자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에어컨 세계 판매량 1위를 지켜왔으며 지난해에는 국내외 에어컨 판매 호조로 48억불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해 에어컨 강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한편, 에어컨 사업은 내년부터 기존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DA사업본부)에서 분리돼 별도 에어컨 사업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상업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 뿐 아니라, 빌딩관리시스템, 홈 네트워크 등을 포함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LG전자는 1968년 국내 최초 창문형 에어컨(모델명: GA-111)를 시작으로, 1988년 국내 최초 멀티 에어컨, 1998년 국내 최초 시스템 에어컨 출시, 2000년 국내 최초 인버터 빌딩 멀티 시스템 에어컨 출시, 2000년 3D입체 냉방, 2001년 액자형 에어컨, 2002년 ‘투인원(2 in 1, 실외기 1대로 실내기 2대 가동)’ 에어컨, 2003년 세계 최초 명화 그림 적용, 2004년 세계 최초 원패널(One

Pannel) 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 2006년 국내 최초 '쓰리인원(3 in 1, 실외기대로 실내기 3대 가동)' 에어컨, 2007년 로봇청소 스탠드형 에어컨 등 새로운 기술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국내외 에어컨 시장을 선도해 왔다.

LG전자 에어컨사업부장 노환용 부사장은 "LG전자 에어컨 누적 판매 1억대 돌파는 40주년을 맞은 에어컨 사업의 기념비적인 성과"라며 "향후 고객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 광파오븐, 판매도 광속



LG전자 디오스 광파오븐이 건강한 음식 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최근 판매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

LG전자 디오스(DIOS) 광파오븐은 지난 달 전년 동월 대비 50% 가량 신장한 13,000여 대 판매를 달성, 올해 월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데 이어 12월에도 매출 호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기몰이는 특히 식품 이물질, 멜라민 파동 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고조로 식사뿐 아니라 간식까지 직접 만들어 먹는 소비자가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디오스 광파오븐의 빠르고 간편한 조리기능과 고급스런 디자인, 체험 마케팅 활동도 매출 탄력에 주효했다.

디오스 광파오븐은 전기오븐, 전기그릴, 전자레인지, 발효, 스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광파(光波)를 이용해 예열없이 고온에서 빠른 조리를 가능케 한다.

조리과정에서 수분증발이 거의 없고 영양손실이 적으며 스팀 용기를 활용해 백설기, 생선찜 등 각종 찜 요리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요리에 자신 없는 주부 사이에서도 큰 인기다.

또, 디오스 고유의 프리미엄 디자인인 하상림 작가의 아트 플라워 패턴을 적용해 고급스런 느낌을 더욱 강조했다

LG전자는 올해 8월 광파오븐을 활용한 건강한 식단과 요리법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오븐&더레시피' (<http://cafe.naver.com/ovenwon>) 를 개설하고 매월 쿠킹 클래스 개최 및 광파오븐 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체험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는 입소문을 타고 최근 4개월 동안 회원 수 7천여 명을 돌파하는 등 주부들 사이에서 큰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한편, LG전자 디오스 광파오븐은 2004년 첫 출시 이후 기존 전기 오븐 시장에 '복합 오븐'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전기 오븐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LG전자 DAM케팅팀장 이상규 상무는 "건강한 식단과 홈메이드 음식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확대되면서 디오스 광파오븐의 인기도 지속될 것" 이라고 말했다.